

재외동포의



2014. 01

특집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펼쳐나간다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OKF 사할린동포들 "연말연시 외롭지 않아요"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파란만장한 역사 지닌 경천사 십층석탑



경천사 십층석탑의 백미는 석탑 전체에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불보살의 모습이다.

1348년(고려 충목왕 4)에 건립된 경천사 십층석탑은 약 13.5m의 웅장한 규모의 석탑으로, 목조건축의 기둥과 공포, 난간과 현판이 잘 표현되어 있고, 특히 기와가 정교하게 표현된 옥개석은 마치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생생한 모습을 반영한 듯하다. 그러나 경천사 석탑의 백미는 역시 석탑 전체에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불보살의 모습이다.

경천사 석탑의 정교한 조각 표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통적인 불상이나 석탑의 재질인 화강암이 아니라 조형 작업이 쉬운 무른 재질의 대리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천사 석탑이 중요한 이유는 석탑 자체가 한국 문화재 수난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1907년 순종의 가례에 일본 특사로 온 궁내대신 다나가 미스야키(田中光顯)가 석탑의 무단반출을 시도했다. 당시 주민들이 이를 저지했으나 헌병들이 총칼로 위협하여 수레로 부채들을 반출하였고, 다시 군수가 이를 제지했지만 결국 한밤중에 밀반출되었다. 석탑 반출은 즉시 문제가 되어 '대한매일신보'에 10여 차례 이상의 기사와 논설이 게재되면서 석탑 반출의 불법성이 알려



경천사 십층석탑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재개관 시 현재의 전시실에서 재조립돼 웅장한 위용을 다시 드러냈다.

졌고 마침내 1918년 11월 15일 석탑은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박물관에 귀속된 경천사 석탑은 당시 기술로는 재건립이 어려웠기에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재개관 시 현재의 전시실에서 재조립되어, 100여 년 만에야 비로소 석탑의 그 웅장한 위용을 다시 드러냈다. **[장]**



4



10



12



표지
12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과 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등 20명이 이곳을 찾았다. 재단은 이날 사할린 동포 노인 40여 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점심을 대접하는가 하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흥겨운 잔치를 열었다.

- 4 **특집**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펼쳐나간다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6 **인터뷰** “동포 인재들의 모국 활동 적극 돕겠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신년 인터뷰
- 8 **화제** “전세계 차세대 현황파악 시급”
“재외동포재단 사업 국민에 알려야”
- 10 **기획** 재외동포 역사의 첫 발걸음 고려인 이주 150주년
한민족 저력으로 시련 극복한 불굴의 이주 역사
- 12 **현장의 목소리** 28개大 · 12개高 찾아가 3천명에 강의
“정규 교과목 개설해 달라”
- 14 **한민족 공감** “통일시대 준비해야, 경제 대도약 기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내외신 회견
- 15 **지구촌 통신원** 캐나다 연방 의회에 한인 보좌관 ‘부쩍’ 증가
연아 마틴 상원의원 정치인턴십 과정 점차 정착
- 16 **동포의 창**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고려인 대거 표창 외
- 18 **글로벌코리아**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중요”
아프리카 거상 임도재 아중동한인총연합회장
-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 20 **동포문학** 공씨책방을 추억함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대상 박성기(뉴질랜드)
- 22 **OKF뉴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 “연말연시 외롭지 않아요” 외
- 24 **고향 소식** 시간의 더미 위에 부활한 꽃 부산
- 26 **재단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산HFP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펼쳐나간다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은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모국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지역별·특성별·직능별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달라진 재외동포 정책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을 허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천여 명에 달한다.

현재는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이라도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 내에서의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올 1월 17일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적을 보유했다가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재외동포가 된 경우 안장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한국과 러시아 간 비자(사증)면제협정도 새해부터 발효됐다. 한국과 러시아 간 무비자 입국은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활동이나 장기유학, 상주 목적이 아닌 관광 혹은 방



문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60일 동안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30일을 더 머무를 수 있다.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을 입안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재외선거를 계기로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재외국민 선거 등록 절차 간소화다.

또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보완·확충하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 한글학교와 한국국제학교 등의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대상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젊은 인재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허용 연령을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복수국적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과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내놓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 유권자는 선거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한 번 신고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60~150일 전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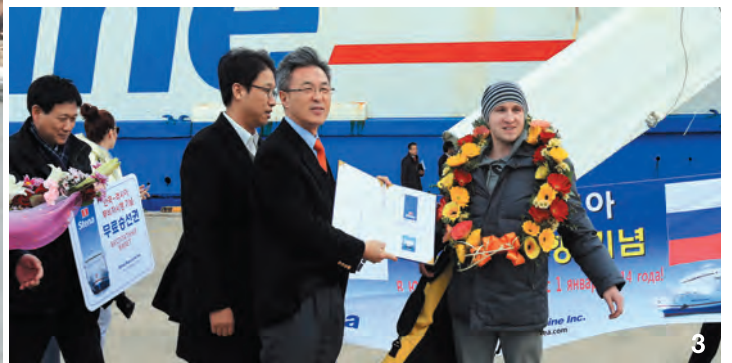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올해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49개 공관에 법률자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2012년 111명이었던 '영사협력원'도 129명으로 증원했다"고 소개했다.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영사 서비스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여권 신청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과 결합한 여권 업무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된 한글학교 교육과 관련,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액됐다. 이 예산은 교육방송 EBS, 동북아역사재단의 콘텐츠를 한글학교에 지원하도록 편성됐으며 3~4년 안에 현재 수준보다 2배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창**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과 내실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재외국민 투표함의 개표 모습.
- 2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육 예산은 올해 20% 증액됐다. 사진은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2013 재외한글학교교사 초청연수' 참가자들이 한글사랑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 3 새해부터 발효된 한·러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1월 1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입국했다.



2



3

“동포 인재들의 모국 활동 적극 돕겠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신년 인터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14년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또 “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는 우리 국력의 외연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2013년은 미국 땅에 한인들이 첫발을 디딘 지 110년, 독일로 우리 광부들이 처음 파견된 지 50주년, 브라질 이민 50주년 등 우리나라 이민사에서 의미 있는 해였다”며 “선조들이 떠나면 이국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이사장은 “정부는 ‘재외동포도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동포사회의 단합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연합뉴스의 신년 인터뷰에 응한 자리에서도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네트워크 강화,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포사회와 더욱 밀접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수요자 만족도가 점차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재외동포 간, 재외동포-모국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CIS 지역이나 멕시코, 쿠바 같은 지역에 있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월 3일 서초구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의 동포를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이사장은 또 국내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탈북 가정의 청소년이 재외동포 가정에 머물도록 하는 “홈스테이 익스체인지”(Homestay Exchange)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외동포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도 털어놓았다.

다음은 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한 해 성과를 평가한다면.

A. 지난해에는 국정 과제에 따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 확충, 한글 교육을 포함한 차세대 정체성 함양 등 동포사회와 더 밀접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또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이 연중 비즈니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A. 지난해보다 재외동포 교육 예산이 10%가량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4~5% 증가했다. 정기적인 행사보다는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포사회 육성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 특히 한글 교육을 포함한 한민족 정체성 교육, 한상과 같이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증액된 교육 예산으로 CIS지역과 조선족 교사를 비롯해 멕시코 등에도 특별히 지원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은 조선어교원 초청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전통문화 연수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비전과 희망을 논의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매년 20여 개국에서 100명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참가자들이 국내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이동 50명과 2:1 멘토 결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CIS 지역이나 멕시코, 쿠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포들을 돕는 데도 힘쓰겠다.

Q.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A.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을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홈스테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개설, 국내 청소년을 동포사회로 보내 재외동포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해인 올해에는 시범사업 격으로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탈북자 가정의 청소년을 소규모로 선발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재외동포의 존재와 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0여 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전문 강사를 확보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재외동포를 알릴 것이다.

Q. 2014년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다. 관련 사업·행사의 추진 방향은.

A. 최근 학계, 사회계, 정치계를 아우르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준비 위원회'도 발족됐기 때문에 준비위와 재

단, 외교부, 현지 공관 등이 협의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단은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 관련 예산 10억 원을 배정받아 외교부와 함께 정부 주도의 행사와 사업을 진행한다. 이주 150주년 기념식, 학술포럼, 문화 공연은 물론이고 150주년이라는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물 제작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Q. 재외동포들에게 신년 덕담을 한마디 해 달라.

A. 갑오년 새해를 맞아 말의 기상처럼 동포들의 생업과 한인회, 한인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바랍니다. 재단이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동포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층 좋은 프로그램과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포사회와 모국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

“전 세계 차세대 현황파악 시급”

“재외동포재단 사업 국민에 알려야”

‘2013 재외동포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및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3 재외동포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3 재외동포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및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이규영 서강대 교수,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김태기 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 임영상 한국외대 교수,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등 재외동포 학자·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방안',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 아래 패널 간 토론이 각각 진행되고 이후 일반 참가자 자유토론 순서도 마련됐다.

류태영 건국대 교수는 기초강연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이 좀 더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직하려면 마스터플랜 작성 및 상부 정부조직 지도자들을 설

득할 수 있는 자신감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외동포재단의 역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스라엘 벵구리온대학교 교수를 지낸 바 있는 류 교수는 해외 각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데 묶는 세계적인 유대인 조직인 '유대민족연합회' (World Jewish Organization) 사례를 예로 들며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대민족연합회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상시적으로 관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자국 재외동포들을 위한 조직운영이 체계적”이라며 “하부조직으로 구성된 정치 분과, 경제 분과, 금융 분과, 예술 분과, 안보분과 등 분과 조직 역시 거대한 세계기구로서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영화 제작 지원, 소설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 확대 주장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토론은 오전 1부에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방안', 오후 2부에는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방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재외한인학회회장인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정부와 재단 차원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논의한 1부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 전문가 토론회에서 류태영 건국대 교수가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곳곳에 흩어져 사는 한인 차세대들 한데 모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재외동포들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차세대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인 차세대는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데다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에 동화돼가는 추세”라며 “이들을 한민족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려면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활약하는 차세대 리더는 많지만 이들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포진해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차세대 분포와 그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조사가 이뤄지고, 그 위에 차세대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재단이 차세대 주도의 차세대대회 조직 및 구성, 차세대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교육기금 설립 등의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며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것을 주장했다.

국내에 들어와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사는 조선족과 고려인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최우길 선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다문화를 내세운 행사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재외동포 행사

에는 소홀하다”며 “조선족과 고려인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현황 파악과 활용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규영 서강대 교수는 “고국에 와 있는 재외동포는 출신지에 따라 처한 상황도 대우도 다 제각각”이라며 “세계화 시대에 맞게 거주지 구별 없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지원과 차세대 육성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국내 인지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려면 동포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메일 뉴스를 서비스하는 등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토론회에서는 러시아, 일본 거주 동포 정책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김진규 고려대 교수는 “러시아 한인 이민 역사가 150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많은 고려인이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동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방적인 출입국 정책을 주문했다.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는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사업은 한국 국적자에게만 집중돼 있어 귀화자가 그동안 소외돼 왔다”며 “유독 일본에서만 재외동포를 혈통이 아닌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귀화자 가운데 많은 재력가는 기회만 된다면 모국에 이바지하고 싶어한다”며 “정부가 이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재단에서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재단 사업을 한층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고려인 이주 75주년을 기념하는 한민족 축제가 2012년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카주구 대학교에서 열려 고려극장 무용단이 소고춤을 추고 있다.

재외동포 역사의 첫 발걸음

고려인 이주 150주년

한민족 저력으로 시련 극복한 불굴의 이주 역사

고려인이 러시아 연해주로 옮겨가 정착한 지 올해로 150년이 된다. 폭정과 가난을 피해 동토의 땅으로 이주한 선조들은 척박한 자연환경, 현지인의 멸시와 차별, 당국의 탄압과 강제이주, 분단과 냉전, 소비에트연방 해체 등 신산과 굴곡의 세월을 견뎌내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고려인의 연해주 정착 시기는 1863년경으로, 1902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하

와이에 건너가려고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선조보다 39년이나 앞선다.

그러나 한인 13가구 60명이 연해주의 지신허(地新墟) 마을에 정착했다는 러시아 측의 공식 기록은 이듬해인 9월 21일 나타난다. 이 기록을 근거로 전문가와 국내 단체들은 2014년을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으로 정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나라를 잃자 한인들의 눈과 귀는 고국으로 향했다. 안정된 정착을 기반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한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어섰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 신홍학교 설립자 이동녕, 항일무장 투쟁의 영웅 홍범도, 대한제국 장군 출신의 혁명가 이동휘, 국사학자 신채호 등 연해주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꾸준히 이어져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하기 전까지는 20만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



강제이주 이후 고난 극복

1937년 8월 21일 구소련 정부는 고려인이 일본의 첩자로 의심된다며 강제이주 명령을 내린다. 군대를 동원해 9월 9일부터 11월까지 고려인 18만 명을 장장 5천~6천km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내쫓은 것이다.

불과 1주일, 또는 2~3일 전에 통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강제이주에 앞서 스탈린 비밀경찰은 독립운동가나 지식인 등 고려인 지도자 2천 500명을 체포·처형해 고려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고려인은 좌절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거듭했다. 황무지를 개간했고, 중앙아시아에 논농사를 전파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 콜호스(집단농장)는 300만 평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 소련 최고의 모범 농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려인들은 열악한 환경을 한민족 특유의 인내로 이겨내고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해 오늘날 120개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구소련 시절 전체 노력영웅 1천 200여 명 중 750여 명을 배출했다.

소비에트연방 해체의 기로에서 오뚝이처럼 재기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는 고려인의 몰락을 가져왔다. 소련 시절 공용어인 러시아어만을 구사하던 고려인들은 신생 독립국들이 토착 민족어를 국가 공용어로 선포하면서 고급 전문직과 공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다행히도 1993년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제이주의 탄압이 불법적이고 범죄였음을 인정했다. 신원이 회복된 고려인들은 독립국가연합지역(CIS)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다. 카자흐스탄에는 1만2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가스 피스키 그룹'의 유리 채 회장, 세계적인 구리 생산업체 '카작무스'의 사주로 23억 달러의 재산가인 블라디미르 김, 최대 건설사인 '쿠아트'의 잠 올레그 사장 등이 손꼽을 만하다.

정계 진출도 활발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에 유리 텐(한국명 정홍식), 발렌틴 최가 당선됐고 그 뒤를 2007년 류보미르 장이 이었다. 2011년에는 육군 소장 출신의 유리 엄, 유리 텐의 아들 세르게이 텐이 하원의원에 선출돼 활약 중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협회장인 로만 김이 소수민족 대표로 하원에서 활약 중이며, 유리 최 상원의원과 빅토르 최 하원의원도 계보를 잇는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4~2000년에 부총리를 역임한 빅토르 천, 상원의원을 역임한 베라 박 등이 있고 키르기스스탄에는 3선 의원인 로만 신이 있다.

2013년 현재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고려인은 러시아에 17만1천 명, 우즈베키스탄 17만1천 명, 카자흐스탄 10만5천 명, 키르기스스탄 1만7천 명, 우크라이나 1만2천 명, 투르크메니스탄 1천 명, 벨라루스 1천2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도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창**

- 1937년 9월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이 첫발을 내린 카자흐스탄 우슈토크. 당시 집이 없어 한인들이 땅을 파고 모여 살던 외곽의 토굴촌은 지금 공동묘지로 변했다.
-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된 뒤 콜호스(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경영, 구 소련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까지 받은 '김병화 농장'의 드넓은 목화밭.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28개大 · 12개高 찾아가 3천명에 강의

“정규 교과목 개설해 달라”

재외동포재단은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대학을 돌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조규형 이사장을 비롯한 동포재단 임직원이 총출동해 전국 28개 대학과 12개 고교에서 3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재단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전국 15개 고등학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대학으로 확대해 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사회 주역인 대학생들이 재외동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포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3월 14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특강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6월까지 재단 임원들이 전국 16개 대학을 돌며 재외동포 개념과 현황, 동포사회 현안,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재단은 고려대 등 16개 대학과 협력해 1학기(3~6월)에 총 20회에 걸쳐 대학생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한 뒤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해교육 동참 대학 늘어나

2학기를 맞아 동포재단은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국 20여 대학에서 재단 전·현직 팀장급 이상 임직원이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사회 현황, 재외동포재단 소개, 재외동포의 미래 등과 관련해 특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특히 인하대, 전남대와 협력해 각 8회, 4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또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 전남대 등 지금까지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학교 이외에도 공주대, 연세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강의 일정을 협의해 더 많은



주요 대학이 재외동포 이해교육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 팀장은 “이해교육을 대학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외대, 전남대, 인하대는 교양 강의가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한 정규 교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해교육을 시행한 대학에서 재단의 ‘재외동포 논문 공모전’에 응시자가 많이 나온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교양과목으로 확대 필요성 제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현황과 역사, 생활상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재외동포 이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거나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외동포 이해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국외대의 임영상 교수는 “초·중·고등학교 때 재외동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겁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강의가



1



3



4



2

- 1 2012년에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전국 6개 지역 15개 학교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 2 대학생들이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의를 듣고 있다.
- 3 재외동포재단은 2013년 7월 26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전문가 30명을 초청해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개선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4 김경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교육' 특강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거주국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리봉동 조선족 타운, 안산 사할린 한인 고향마을, 고려인 타운 '옛골' 등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외국의 '코리아타운'을 찾아가볼 기회를 주는 것도 동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는 "일정한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 개발이 시급하고 차세대 동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슬픈 과거사는 지양하고 성공 지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서울대 교수는 "2014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에 '주제 탐구 세미나: 재외한인'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학생설계 전공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의 현장학습, 인턴십, 자유훈구 등을 축적하면 장기적으로 '재외동포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단은 올해부터 고등학교와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반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문화센터를 활용해 교육하고, 재단 직원을 포함해 학계 등 재외동포 관련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지를 한 후 신청을 받아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 연수기관이나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장**

“통일시대 준비해야, 경제 대도약 기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내외신 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 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

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면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경제 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캐나다 연방 의회에 한인 보좌관 ‘부쩍’ 증가

연아 마틴 상원의원 정치인턴십 과정 점차 정착

- 조재용 연합뉴스 캐나다 통신원 -

캐나다 오타와의 연방 의회에 한인 보좌관들이 부쩍 늘어났다.

한인 출신 연아 마틴(48·한국명 김연아) 연방 상원의원이 힘을 쏟는 정치 인턴십 과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상·하원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한인들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6명이 마틴 의원이 운영 중인 1년 과정의 정치 인턴십 과정을 거친 젊은 한인들이다.

마틴 의원은 12월 23일 밴쿠버에서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인 후세들의 중앙 정치 무대 진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보좌진 5명 가운데 3명이 한인 1.5세대들이라고 소개했다.

총괄 수석 보좌관인 그레이스 시어(33·여, 한국명 조은애) 씨를 비롯, 입법 보좌관 라이언 구(26·한국명 구영모), 행정 담당 주디 장(22·여) 씨 등이 마틴 의원의 주력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다.

오타와 정가에 한인 진출의 길을 다방면으로 숙고하던 마틴 의원은 한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정치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이 과정을 거친 인턴들은 2011년 1기 때 6명, 2기 4명, 3기인 올해 3명 등 모두 13명. 이들 중 6명이 현재 오타와 의회에서 보좌관으로 활약 중이다.

마틴 의원실의 보좌관 주디 장이 올해 인턴십 과정 출신이며, 토니 클레먼트 재정위원장실을 비롯해 베리 디볼린, 로브 앤더스 하원 의원실의 한인 보좌관도 인턴십을 거쳤다.

장 보좌관은 밴쿠버 인근 버나비 시에서 고교를 마친 후 맥길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열린 인턴십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선발된 경우다.

마틴 의원은 “인턴십 과정을 시작한 이상 오타와에서



한인 출신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밴쿠버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한인의 중앙정치 진출을 강조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디 장 행정, 연아 마틴 의원, 그레이스 시어 수석, 매튜 세바스차니 지역 보좌관과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가장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사전 교육과정과 선배들의 개별 멘토링을 철저히 결합한 훈련이 잘 작동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그답게 교육 자료와 교재도 직접 개발해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 수도이자 정치 1번지인 오타와에는 이들 외에도 다른 경로로 하원 의원실 직원으로 일하는 한인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 신분의 한인이 모두 35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틴 의원이 오타와 한인 네트워크로 운영 중인 한길회(Hanway Society)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이를 알게 돼 참여한 다른 캐나다인들도 2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마틴 의원은 “인턴십 과정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서 “이들이 멋지게 성장해 차근차근, 그러나 점점 많은 한인이 캐나다 정계에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고려인 대거 표창

김상욱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 상무위원



좌측부터 최유리 카자흐스탄권투연맹 부회장, 김계르만 국립대 교수, 김로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장.

배 유리 블라지미르비치 박사가 12월 16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카자흐스탄 엔벡 예리(카자흐스탄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최고 훈장인 '금별' 훈장을 받았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날 훈장을 수여하면서 "배 박사는 민족과학의료센터장으로서 심장수술을 통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공로가 매우 크다"고 그의 공적을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배 박사 외에도 최유리 전 상원의원, 김로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장을 비롯한 8명의 고려인 동포들에게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표창수여식 개최사를 통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직업에 대한 성실성과 근면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 직위에

관계없이 표창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인 2014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동포사회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고려인 동포들이 현지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크게 반겼다.

한편, 이날 배 박사와 함께 훈, 표창을 받은 고려인 동포로는 카자흐스탄공화국 국회 제5기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카자흐스탄권투연맹 부회장인 최 유리 안드레이비치가 '파라사트'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공화국 국회 하원의원이면서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장인 김 로만과 고려인협회 부회장인 김 계르만 교수가 카자흐스탄 민족총회가 주는 '비를리크' 금메달을 받았다.

그 외 유한책임회사 베카-스트로이몬타즈의 김 올렉 사장과 김 워토르는 '예렌 엔베기 우신(현신적 노동)' 메달을 발하쉬리가 치야의 수리경리 국가공영기업소 지배인이면서 발하쉬리 소수민족문화연합 회장인 김 블라디미르 그리고리비치는 카자흐스탄 민족총회가 주는 '이진스트바' 금메달을 받았다.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배우 백 안토니나는 '카자흐스탄 공훈활동가' 칭호를 받았고 고려극장 연출가 김 나제즈다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영예 표창장을 받았다.

각국 한인회장 새 얼굴로 교체, 소통·화합 강조

지난해 말 세계 각국 한인회의 수장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의 제17대 회장에는 브라이언 김 에드먼턴한인회장,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제5대 회장에는 이동우 호주 캔버라한인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낮은 자세로 봉사할 생각"이라면서 "각 지역 한인회 간 소통과 화합, 네트워크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회장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총연 살림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를 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는 천영숙 부회장을 제36대 회장으로 뽑았다. 천 신임회장은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부드러움으로 소통하고 훈훈한 정이 흐르는 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델라웨어·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인회를 대표하는 미국 중동부한인회연합회장에는 김태완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3만 명의 한인을 대표하는 아르헨티나한인회장에는 이병환 민



최측부터 고창원 재독한인글뤼아우프회장, 권영관 폴란드한인회장, 브라이언 김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이동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이병환 아르헨티나한인회장, 이충근 베트남 호찌민한인회장, 천영숙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장, 홍윤선 미국 시애틀한인회장.

주평통 자문위원이 당선됐다. 제26대 회장에 오른 그는 아르헨티나해병전우회장, 한인방법위원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제17대 한인회장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는 정재경 씨가 당선됐다. 폴란드한인회장에는 권영관 현 회장, 파독광부를 대변하는 재독한인글뤼아우프회장에는 고창원 회장이 각각 연임됐다. 2년 만에 한인회관을 다시 사들여 보금

자리를 마련한 미국 시애틀한인회는 홍윤선 사무총장, 세인트루이스한인회는 조원구 씨를 각각 회장으로 뽑았다.

아시아에서는 이충근 베트남 호찌민한인회장이 12대 회장에 연임됐다.

중국 상하이한국인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한인회에서는 각각 안태호 회장, 임호성 회장이 연임됐다.

작지만 강한 말레이시아 조호한인회 '2013년 송년회'

김영진 말레이시아 조호한인회 대외협력부회장



올해로 제5대째 이어지는 조호한인회 (회장 오현식)는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결속력과 현지 사회 봉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3년을 마무리하고 화합하는 송년회를 얼마전 조호바루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을 빌려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윤창렬 공사, 김석필 영사와 정상명 행정관이 참석하였고, 윤선규 말레이시아 한인회장, 이정림 말레이시아 한인회 부회장, 남상구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 및 조호바루에 진출한 고려제강, 롯데건설, 타이탄 화학 등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300여 명의 조호 교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인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올 한해 한인회 살림인 회계보고와 행사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한인회 살림을 알렸다.

사이의 강남 스타일의 음악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면서 저녁식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 초청된 색소폰 앙상블과 쿠알라룸

푸르에서 활동하는 교민 사물놀이패의 공연과 박기원 양의 플룻 공연, 아이들의 벨리댄스가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웃음소리가 행사장 밖으로까지 울려 퍼졌다. 특히 한국 비행기 티켓이 들어간 행운권 추첨은 3차까지 가면서 흥분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2013년 조호한인회 송년회는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고,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2014년 달력, 티셔츠, 훈제오리고기 등을 나눠주었다. 조호한인회는 처음으로 한인회 환경보호 장바구니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다. 작별의 인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에 따라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2013년의 송년회는 이렇게 마음 짝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조호한인회는 행복한 조호바루 한인사회를 위해 현지사회와 어우러져 나가고 있으며, 매년 한인 골프대회, 체육대회, 코리아 페어 등 주관 행사만 열 차례가 넘고, 다양한 행사와 고국을 알리기 위해 매년 코리아 페어에서 독도 알리기 행사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한인회라 늘 자부심 가득하다. **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중요”

아프리카 거상 임도재 아중동한인총연합회장

가나에서 21년째 원유 저장시설 건설, 물류, 자재 분야에 진출해 연간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임도재 가나 글로벌 회장.

“아프리카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접근해야 진출이 수월한 곳입니다.”

가나에서 21년째 원유 저장시설 건설, 물류, 자재 분야에 진출해 연간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임도재(61) 가나 글로벌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한 한상(韓商)으로 꼽힌다.

2013년 11월 말 공주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임 회장은 ‘아프리카통(通)’답게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자원 보고인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가 진출했지만 모두 자원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현지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발 늦게 진출한 한국은 기술 이전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에이스트윈타워에 있는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서울사무소에서 임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한국산은 곧 ‘일등제품’으로 통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조를 빌미로 지하자원 개발에 혈안이 된 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진출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한국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진출시켜 차례대로 기술 이전을 해나간다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원조를 앞세워 투자 규모를 늘리는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의 경제 대상 1호 국가라고 밝혔다.

일례로 최근 가나 정부가 중국 기업이 세운 광산에서 일하는 중국인 불법노동자를 묵인하지 않고 추방하는 일을 꼽았다. “먹고살기 어려울 때는 중국의 대규모 원조를 무척 반겼지만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서 품질에 눈을 떠 구호물품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싸구려 주고 자원 빼앗아간다는 거죠. 중국 기업

은 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오기 때문에 현지 고용 창출도 없고 임금도 전부 중국으로 송금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외교관의 역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곳이라 한인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가 중심에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임 회장은 위급 시 한인의 피란과 구호를 위해 2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 “최근 중동에 불어 닥친 재스민 혁명 덕분에 아중동 지역의 한인들이 서로 뭉쳐 위기를 돌파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쿠데타가 종종 있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한인회가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결속도 더 다지고 총연합회 역량도 키우는 데 당분간 주력할 생각입니다.”

내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에 선임된 그는 ‘채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내년 행사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베풀고 있다.

임 회장은 21년 전 SK건설 지사장으로 가나에 파견 나갔다가 5년 만에 독립했다. 플랜트 건설업계 1위, 석유 저장시설 유지보수 분야 90% 독점 계약이라는 기업을 일궈냈다.

임 회장은 가나 한인사회와 현지인과의 우호 관계 형성을 도우려고 매년 한인회장배(盃) 쟁탈 가나 고교축구대회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매년 국립 고교에서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후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의료설비가 열악한 안과·치과·이비인후과 병원을 지어 저렴한 실비로 현지인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고국에서 장애인 재활센터를 지어 봉사하는 게 마지막 꿈입니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들르다 / 들리다

‘들르다’와 ‘들리다’는 엄연히 뜻이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들리다’는 ‘들다’나 ‘들다’의 피동이나 사동의 형태로, ‘노래 소리가 들리다’, ‘00에게 가방을 들리다’, ‘나쁜 병에 들리다’, ‘몸이 번쩍 들리다’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들리고, 들리지, 들려서’ 등으로 활용됩니다.

반면에 ‘들르다’는 지나는 길에 잠깐 거친다는 뜻으로, ‘들르고, 들르지, 들러서’와 같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들리다’나 ‘들르다’를 모두 ‘들리다’로 잘못 사용해서 이제는 ‘들르다’라는 말은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들르다’라는 말을 사용한 바른 대화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과일 좀 사 왔니?”
 “아차, 은행에 들렀다 오느라고 가게에 들르는 걸 잊어버렸네요.”

둘째, 셋째, 넷째

보통 숫자를 셀 때는 ‘한, 두, 세, 네’와 같이 숫자를 나타내는 우리 고유어 뒤에 수를 세는 단위를 써서 ‘한 명, 두 장, 세 병, 네 권’ 등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나타낼 때는 ‘~째’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달라집니다.

‘~째’라는 말은 수관형사나 기본수 아래에 붙어서 ‘첫째 아들이다’라든가 ‘둘째가라면 서럽다’와 같이 차례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밥을 세 그릇째 먹는다’처럼 수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복잡하지만 하고 인위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서 순서를 나타낼 때와 수량을 나타낼 때 모두 받침 있는 형태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합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째 아들, 세째 아들’이라고 쓰면 틀리고 받침이 있는 형태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쓰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참]**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오른쪽 방향 열쇠

- 2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등을 동반한다.
- 4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 5 깊은 바다 밑에 많은 산호층이 모여 높이 50cm 정도의 나뭇가지 모양의 군체를 이룬 것
- 7 견장을 수 없이 타는 불과 같이 매우 급함

- 8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0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고기
- 12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 13 목적하는 바를 이룸
- 15 병의 아가리나 구멍 등에 끼워서 막는 물건
- 17 서로 맞붙어 치고받으며 싸움
- 18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 20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함, 또는 그것에 대해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등을 줌
- 22 사람을 청하여 부름
- 24 면의 행정을 통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장
- 26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물감으로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거나 새긴 것
- 29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 자는 맹덕(孟德).
- 30 큰 물고기
- 31 나라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 32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 아래쪽 방향 열쇠

- 1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 3 항공, 항해 등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 지시계기, 자침(磁針)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다.

- 4 같은 학급이나 같은 학년의 학생
- 6 몸의 길이가 2미터 정도인 숲속에 사는 고양이과의 포유류 동물,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 9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등이 옳거나 좋다고 판단해 수긍함
- 11 아주 낡고 오래된 쇠, 또는 그 조각
- 12 억지가 매우 심해 자기 의견만 내세워 우기는 성미, 또는 그런 사람
- 14 나이가 적을 칭
- 16 투표함을 열고 투표의 결과를 검사함
- 19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함
- 21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작은 문
- 23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5 간장에다 쇠고기를 넣고 조리 반찬
- 27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
- 28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

(정답은 2월호에 게재합니다.)

공씨책방을 추억함



박성기 _ 뉴질랜드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대상

‘김지하 시집 잃어버렸다고 인상 쓰는兄(형)을 위해 〇〇〇이 드립니다. 1990년 2월 14일, 종로서적 앞에서.’

1989년 6월 푸른숲에서 펴낸 ‘내가 읽은 책과 세상’의 뒷날개에 쓰여 있는 문구이다. 후배 G가 내게 준 책 선물인가 보다. 그 무렵, 아끼던 시집을 분실했다고 꽤나 불통거렸던 모양이다. 위로 차원에서 G가 나를 이끌고 종로서적 앞 작은 책방으로가 책을 사주었던 기억이 아슴푸레 떠오른다.

뉴질랜드로 이민 온 지 햇수로 스무 해가 다 되어 간다. 삼십 대 초반에 와 어느덧 지천명에 이르렀다. 20년의 세월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로 ‘책’이 아닐까.

어떤 한 사람을 정의하는 데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나쁜 사람’, ‘괴팍한 사람’ 등 한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뿐. 일생 팔십 구십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이십계도 그렇게만 기억되는 게 사람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수명을 다 하진 않았지만 ‘책에 미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1980년대, 젊은 날의 나는 늘 책방에 있었다. 그곳은 종로서적이기도 했고, 또 교보문고이기도 했다. 때로는 서울역의 헌책방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청계천의 헌책방이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책방을 돌아다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재개발에 밀려 변방으로 물러난 공씨책방을 유독 더 추억하고 싶다.

내게 공씨책방은 문학의 굴, 지혜의 굴, 상상의 굴이었다. 종일토록 머물러도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문학, 역사, 철학, 과학 등 수만 권의 책이, 수천만 개의 활자가 춤추는 모습이 너무 황홀했다. 나는 그렇게 책에 취해 젊음을 보냈다.

책방 주인 고(故) 공진석 씨와의 만남도 내게는 의미가 깊다. 세월의 간극이 커 의미 있는 우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늘 면장갑을 끼고 헌책을 매만지는 그의 모습 속에서 내 미래상을 꿈꾸기도 했다. ‘나이 사십이 넘으면 헌책방을 해야지,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책갈피를 넘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는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안타깝게도 공진석 씨는 1990년 7월,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확히 지금의 내 나이이다. 그의 부음은 한 일간신문 1면에 기사로 실렸다. 그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 보여준 단면이었다. ‘헌책방 교보문고’를 꿈꿨던 공진석 씨, 그는 헌책을 사오던 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책방이었다. 큰 아이의 이름을 따 한솔문화원이 라는, 나름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제법 그럴듯한 시작을 했다. 이유는 역할을 책방으로만 그

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음악 공연도 마련하고, 문학 세미나나 철학 강좌도 열어 나 개인뿐 아니라 교민사회를 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해보리라 생각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교민사회에도 힘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저 없이 책방을 차렸다.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다. 되지도 않을 일에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살라는 조언도 술하게 받았다. 어린 세 아들까지, 가족들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문화원 실패의 후유증을 이기고 다시 시작한 일 역시 책방이었다. 이번엔 한국 책 대신 영어책을 택했다. 교민이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한 동안은 기대 이상으로 잘 풀렸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복판, 내가 가야 할 길은 영어로 쓰인 책이 아니라, 한국어로 된 책을 다루는 일이라는 생각을 부여잡은 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에 두고 온 모국어가 그리웠다. 내 나라 말, 내 나라 문학, 내 나라 문화에 배고팠다. 모국어의 속살로 그려진 세상을 만나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영어책 비즈니스에 흥미를 잃어갔다. 결과적으로 수익에도 문제가 생겼다. 어쩔 수 없이 영어 책방을 접어야만 하는 순간이 왔다. 또 한 번의 참담한 실패였다.

작년 4월, 우여곡절 끝에 한솔문화원 간판을 다시 달았다. 어쩌면 열 곳에 가까웠던 교민 책방이 줄줄이 문을 닫아 나라도 다시 해보자는,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를 투지로 또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사는 곳에 책방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내 주장이었다.

다시 문을 연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다. 순간순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큰 무리 없이 흘러가고 있다. 관록의 탓일까,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은 눈여겨 보지도 않을 정도로 고수가 되어 있다.

삼천 권의 종자 책으로 시작한 문화원이 이제 팔천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거금을 들여 천권에 가까운 새 책을 한국에서 사오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교민들이 정성껏 기증한 책들이다. 옛 여자 친구의 흔적 마냥 책 사이사이 묻어 있는 추억의 자국들로 행복한 요즘이다.

종종 부록으로 들어있는 청춘들의 군대 사진, 연인들의 여행 사진, 가족들의 단체 사진도 추억을 더듬게 해 준다. 또 더러는 책갈피 대신 사용했음직한 빗바랜 낙엽도 만날 수 있다. 헌책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책갈피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것들이다.

어렵사리 다시 일어난 문화원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삼천 권, 팔천 권의 책을 넘어 한두 해 안에 이만 권 아니 오만 권의 장서로 빛났으면 하는 기대다. 그렇게 책으로 아니 추억으로 빛난 세계에서 더 멋진 꿈을 꾸며 사는 교민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최근 들어 동네 친구와 함께 자주 들르는 열 살 여자아이의 말이 날 기분 좋게 해준다. “한솔문화원 오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아마도 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이라. 빌 게이츠는 “나를 키워준 것은 동네 도서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클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한솔문화원이 이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한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세상 너머 저 편에 계신 공 선생께서 예의 그 사람 좋은 미소를 내게 날려 날려주시지 않을까. **창**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 “연말연시 외롭지 않아요”

“연말연시면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쓸쓸한데, 이렇게 매년 찾아와주니 외롭지 않아요.”

12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과 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등 20명이 이곳을 찾자 이수진(71) 남양주 사할린동포회장이 반가운 얼굴로 이들을 맞았다. 재단은 이날 사할린 동포 노인 40여 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점심을 대접하는가 하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흥겨운 잔치를 열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맞는 고국의 겨울은 덜 춥고 지낼 만하다”며 “재단은 물론 주변의 관심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11년 1월에 부인 이복순(68) 씨와 함께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2010년 고국에 정착한 한춘심(70·여) 할머니는 “연말이면 이역만리 동토의 땅 사할린에 두고 온 자식과 손녀가 보고 싶은데 우리를 찾아와 즐거운 시간까지 마련해줘 감사하다” 눈물을 글썽였다.

재단은 이날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안산 고향마을,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등 26곳의 사할린 동포 3천여 명에게 쌀과 생활선물세트 등 위문품을 일제히 전달했다. 지난 1998년부터 15년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3일 남양주·안산·인천 등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거주지역을 방문해 사할린 동포 3천여 명에게 쌀과 생활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랑의 나눔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 이사장은 “동포재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도 관심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고국의 품에 안겼지만 사할린에 남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외로움을 겪으시는 어르신께서 오늘날만큼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재외동포 이해가 큰 수확”

“‘재외동포’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한국의대 영어교육과에 다니는 유찬송(25) 씨는 12월 20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제2기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자원봉사단(OKF, Overseas Koreans’ Friends) 해단식’에 참석해 1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자평했다. 유 씨는 “1년간의 봉사 활동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날 해단식에서 우수 봉사단원으로 뽑힌 스페인에서 온 김서진(여·21·연세대 생명공학과) 씨는 지난 2010년 동포재단 청소년 초청연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모국에 유학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혜택을 값싸고 봉사단 활동에 나섰다.

23명의 대학생은 1년 동안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세계한인청



12월 20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제2기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자원봉사단 해단식에서 봉사단원들이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년 모국 연수, 세계한인청세대대회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행사 진행과 함께 통역을 돕는 등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봉사를 통해 재외동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두고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일코리아연구소 동포재단 연구용역서 ‘재일 민족교육’ 강조



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는 12월 12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2013 재외동포재단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이 학생 수 감소와 정체성 위기를 마주한 가운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공동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는 12월 12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2013 재외동포재단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공개한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일동포 민족교육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지원 부족을 겪고 있으며 현실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 단체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내 한국학교·조선학교·민족학급·한글학교 등에서 1천400여 건의 설문·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팀은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그 어떤 나라의 동포보다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재일동포와 민족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2013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재외동포 우수 인재 모국 귀환 정책 비교 연구'를 연구 의뢰했으며 조만간 이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선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지원 확대나 한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 (3.84, 리커트 척도 5기준), '민족교육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3.64), '교육 시스템 전반적 개선' (3.52) 등을 꼽았다. 조선학교 관련 조사는 남북관계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독 한글학교 교사들 연수회서 '교육 노하우' 익혀



12월 6일부터 3일간 독일 바트홈부르크 유스호스텔에서 '2013 재독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가 열려 독일 전역의 26개 한글학교에서 96명의 교장과 교사가 참석했다.

재독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안을 모색한 뒤 한국 정부에 수업 교재와 관련 자료를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독한글학교교장협의회(회장 최영주)는 지난 12월 6일부터 3일간 독일 바트홈부르크 유스호스텔에서 '2013 재독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독일 전역의 26개 한글학교에서 96명의 교장과 교사가 참석했다.

서울대 이병규 교수와 명말초등학교(경기도 안산) 허옥희 교사는 재외동포재단의 파견 교수로 연수회에 참석해 각각 '한글 첫걸음 지도방법'과 '현장에서 글쓰기 교수와 외래어표기법'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영주 회장은 12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 열풍 덕분에 우리 자녀의 자긍심도 커져가면서 한글학교를 찾는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를 이중 언어와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로 키우는데 교사들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한글학교 문화학습으로 소고·북·설장구 등 전통 악기를 배웠고, 유아·유치반, 초중고반, 성인반으로 나눠 분과별 토론회도 열었다. 또 총회를 열어 이희늘(여) 비스바덴한글학교장을 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연수회 개막식에는 홍성대 주독한국교육원장과 이창운 본 분과 과학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수회는 지난 1993년부터 21년째 해마다 열리면서 독일 각 지역의 한글 교육과 한국문화 전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시간의 더미 위에

부활한 꽃 부산



부산 시티투어버스(왼쪽). 부산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에 건립된 마리나 시설인 '센텀마리나 파크'. 뒤로 센텀시티 빌딩이 보인다(오른쪽).

부산 근대사의 피라미드, 산복도로

부산에는 과거를 토양으로 삼아 새로운 시간을 열어 가는 감성 여행지가 곳곳에 자리한다. 산복도로가 지나는 도심 고지대 마을에서, 한국전쟁의 애환이 서린 영도에서 부산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산비탈에 비스듬하게 놓혀 놓았다고 상상해 보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 동을 병풍처럼 펼쳐 놓듯 말이다. 부산의 도심인 중구, 동구, 서구 등지의 고지대 산복도로 일대 주거지가 바로 이런 형태다.

부산은 본래 산악과 바다가 가까워 평지가 넉넉하지 않고 매립지에는 일본인 거주지와 상업·공업 시설, 항만과 수산업 기반 시설이 들어서 조선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산기슭밖에 없었다. 수풀이 우거졌던 산비탈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태반은 가난한 부두 노동자들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은 부산의 고지대 주거지를 더욱 확대시켰다.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다 일본, 중국, 간도 등지에서 돌아온 이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의 수가 50만여 명에 달했다.



산복도로가 지나는 부산 도심 고지대 주거지의 야경.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애환이 커켜이 쌓여 있는 곳이다.

부산시는 2011년 새로운 방식으로 산복도로 일대 주거지 정비에 착수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지대 주거지의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참여·주도형 마을 재생 사업이다. 현재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람과 함께 걷는 절영해안산책로

절영해안산책로는 부산 영도 남서쪽 해안에 조성돼 있다. 해안 절벽 일대에 전망대, 돌계단, 출렁다리 등이 설치돼 있다. 시간 여유를 갖고 걸으면 파도가 들려주는 절창을 감상할 수 있다. 절영해안산책로는 부산의 도보 관광 코스인 갈맷길 3코스의 일부로 전체 길이는 3.3km이다.

산책로를 전부 걸으려면 남항대교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절영해안산책로 시작점 부근에 차를 주차하고 산책로 끝 지점인 중리해녀촌까지 갔다가 버스나 택시로 되돌아오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풍경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걸으면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절영해안산책로의 절경은 '무지개다리' 부터 시작된다. '하늘 전망대', '대마도 전망대', 출렁다리를 지나 '절영 전망대' 까지 약 500m 구간이 하이라이트이다.

산책로의 백미인 '절영 전망대'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조성돼 있다. 멀리 남동쪽으로 대마도가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온다. 전망이 좋은 자리인 만큼 바람도 거세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다. 절영해안산책로는 중리해녀촌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해녀들이 인근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절영해안산책로는 해안 절벽 일대에 전망대, 돌계단, 출렁다리 등을 설치했다.

영도대교, 반세기 만에 도개 기능 부활

부산 영도에는 절영해안산책로 외에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한국전쟁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영도대교(영도다리)다.

영도대교는 1934년 부산 최초의 연륙교(길이 214.6m, 폭 18.3m, 높이 7.2m)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도개교로 건설됐다. 개통 때부터 육지 쪽 상판 31.3m를 수시로 들어 올려 돛이

나 굴뚝이 높은 배가 다리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차량 통행 증가와 다리에 영도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부설되면서 1966년 도개가 중단됐다.

오랫동안 철거 논란을 빚던 다리는 뜻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해체 후 복원' 결정이 내려졌다. 복원된 영도대교는 차선이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어졌다. 영도대교를 명물로 만들었던 도개 기능도 되찾았다. 육지 쪽과 연결된 영도대교 상판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다시 들어 올려졌다. 현재 매일 낮 12시에 도개 시연이 이뤄진다.

부산 시티투어로 명소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역을 기점으로 6개 코스에서 1층, 2층 관광버스를 운행한다. 크게 순환형 코스(2개)와 테마형 코스(4개)로 나뉜다. 순환형 코스는 해운대 방향과 태종대 방향으로 나뉜다. 출발지는 모두 부산역 광장 아리랑호텔 앞(지하철역 8번, 기차역 1번 출구)이다. 테마형 코스는 역사문화탐방코스, 해동용궁사코스,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야경코스 등으로 나뉘며 1층 버스가 운행된다. **[장]**



우리나라 최초의 도개교인 영도대교는 1966년 도개가 중단됐다가 11월 27일부터 다시 들어 올려졌다(위). 1966년 도개가 중단되기 전의 영도다리 모습(영도문화원 제공)(아래).



현대화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왼쪽). 부산 자갈치시장의 옛 모습(오른쪽).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월간 <재외동포의 창>에 동포사회의 생생한 현지 소식을 신고자 합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는 마감 기한 없이 월간 단위로 묶어서 소개할 예정이니 그때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u@yna.co.kr / shaorong@okf.or.kr



행복도시
시공간

기대감...

대한민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날을,
여러분의 기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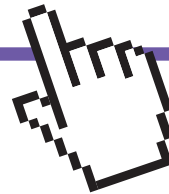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